

전통 생활 용기 전복대서 만난다

대학 박물관, 전시실서 테마전 '용기' 상설 전시회
물동이 · 물장군 · 소줏고리 · 자라병 · 등잔대 등

우리네 생활과 늘 함께해왔지만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통 용기. 생활 용기의 예술성과 다양성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전북대학교에 마련됐다.

전북대 박물관(관장 김성규)이 마련 지난 17일부터 박물관 3층 상설전시실에서 테마전 '용기(甕器)'를 개최하고 있는 것.

지난 4월 진안 손내옹기 이현배 옹기장이 기증한 생활용기를 비롯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시대 용기 등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기증품과 소장품을 연계한 작은 특별전이다.

용기는 일상생활에서 늘 보아 오던 것이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가까이에서 예술성을 감상할 만한 여유는 쉽게 가질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용기는 물과 흙의 물성이 섞이고 갈색조 유약이 겹겹이 붙어 불의 기운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면서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부여받

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용기 탄생의 과정을 찬찬히 뜯어 볼 수 있다. 전시에서는 물동이, 물장군, 소줏고리, 자라병,



전통생활용기 물동이

등잔대, 연가 등 다양한 종류의 용기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용기와 이현배 옹기장이 제작한 생활용기와의 비교도 감상 포인트다. 모양도 다양하고 유약의 깊이도 달라 생활 속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용기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재훈기자



전통생활용기 자라병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주말 개관

물놀이 · 모험체험 · 미니동물농장 등 특별전 외 다양한 볼거리 제공

남원시가 마련한 2018여름방학특별기획 반딧불이랑 떠나는 세계곤충여행이 이번 주말부터 공개된다.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백두대간의 토종곤충과 해외곤충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희귀곤충생태관, 반딧불이생태관, 곤충표본관, 곤충놀이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제공할 예정이다.

희귀곤충생태관은 곤충전문가도 수급하기 어려운 풀리앗투스대왕꽃무지, 웨스트우드굽은턱사슴벌레, 노랑달라타타기시대벌레 등이 국내 최초로 전시될 예정이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헤라클레스장수풍뎅이, 코카서스장수풍뎅이, 나뭇잎대벌레, 꽃사마귀 등 14개국 50여종 2,000여 마리의 아름답고 신비한 곤충

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 '자이언트반딧불이'는 50평 규모의 실내암실에 대형수조를 제작하여 낮에도 반딧불이의 아름다운 빛을 만끽할 수 있게 했으며, 이밖에도 전시관에는



물놀이시설, 모험체험시설, 미니동물농장 등이 마련되어 있어 특별전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1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전 연령대가 입장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30분까지며(휴관일 매주 월요일) 전시관 입장객은 추가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남원시청 산림과 오승배(063-620-5753)로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옛 정취를 찾아서... 무주 최북미술관 서예·민화展

24일까지 서예작품 무본 · 정도선행 · 민화 초충도 · 연화도 등 30여 점 전시

무주군 무주읍 최북미술관에서는 24일까지 서예와 한지공예 전시회 '옛 정취를 찾아서'를 개최한다.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으로 무주전통공예촌 '반딧불 공방'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서예가이자 민화작가 궁도 정이환 선생과 한지공예 · 민화작가인 정연 신미혜 선생

의 작품 30여점(초충도, 연화도 등)이 전시된다.

무주 최북미술관 양정은 학에서는 "무주에 정착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작품이라 더 의미가 있는 전시회"라며 "이번 주말 무주에 오셔서 더위도 식히고 좋은 작품들도 감상해보시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오늘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달 간 매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리조트 곳곳에서 '2018 무주덕유산리조트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음악과 함께 즐기는 '꿀맛 힐링'

무주덕유산리조트서 내달 18일까지 퓨전 국악 · K-POP 댄스 등 공연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올 여름 화려한 여름밤을 만끽할 수 있는 '썸머 페스티벌(Summer Festival)'을 연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달 간 매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리조트 곳곳에서 '2018 무주덕유산리조트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이벤트 광장, 원형무대, 티볼 노천카페 등에서 국악 B-Boy, 퓨전국악, 통기타 보컬, 어쿠스틱 보컬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여름밤에 심심하지 않도록 K-Pop 댄스, 전자 바이올린 등 대형 음악 페스티벌 부럽지 않

은 공연도 펼쳐진다. 열정적인 공연을 즐기다 보면 이열치열로 열대야쯤은 쉽게 이겨낼 수 있다.

더욱이 남녀노소 누구나 흥겹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가족들과 연인들이 즐기기에 안성맞춤. 화려한 공연으로 더욱 고조될 여름밤의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줄 수 있는 덕유산 계곡의 바람을 맞으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여름의 맛을 즐겨보자.

이와함께 주말 낮에는 설천봉 야외무대 공연도 선보인다. 해발 1,520m 설천봉에서 울려 퍼지는 퓨전 판소리와 전자 바이올린의 음률은 또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문체부 성희룡 ·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와 간담회

도종환 장관 "성희룡 · 성폭력 행위자 공적 지원 배제 추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19일 낮 12시,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문체부 성희룡 ·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룡 · 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대책위가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룡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과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각 분야

'성희룡 ·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관해 문화예술계 현장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영애 대책위 위원장과 이해경, 정유성, 변혜정, 이상미, 이한빈, 오성화, 정승아 위원 등이 참석했다.

도종환 장관은 "대책위가 제시한 성희룡 · 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룡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성희룡 ·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바버터 지역 휘트니스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니스	